

단편소설 《돌아온 탕아》

수필가 최규자

고질적인 기성도덕과 사회이념을 부인하고 물질적 향락과 퇴폐적 도취에 빠졌던 19세기 말엽의 풍조인 이른바 <세기말(世紀末)의 절망시대>를 리얼하게 그렸다. 인간의 속물성(俗物性)을 마음껏 비웃으면서 허무주의적인 우수(憂愁)의 맨 밑바닥에서 인간과 미래에의 신뢰를 찾았다.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스크바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였고, 재학 때부터 안토샤 체흔테라고 하는 예명으로 단편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188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갔다. 폐결핵을 앓으면서도 사할린을 여행하였고, 단년에는 모스크바의 예술극장과 손을 잡고 연극사에 길이남을 새로운 기원을 남겼다. 이상이 러시아의 작가 체호프(Anton Pavlovich Chekhov : 1860~1904)에 관한 간단한 약력이다.

체호프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단편소설의 명수이고 근대극의 확립자로 손꼽힌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귀여운 여인》, 《약혼녀》, 《6호실》, 《등불》, 《골짜기》, 《세 자매》, 《벚꽃동산》, 《갈매기》, 《바나 아저

씨》 등 다수가 있다.

단편소설(短篇小說)은 양적(量的)으로 짧은 것이 특색이며 전체로서는 단일의 테마로 단일한 효과를 노리어 인생의 단면(斷面)을 주재(主材)로 한다. 이것을 독자적인 관점(觀點)에서 날카롭게 파악하여 간결(簡潔)과 농축(濃縮)의 수법(手法)으로서 표현한 특색을 가진 소설의 한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러시아의 작가로 단편소설로 뛰어난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투르게니에프(Ivan Sergeevich Turgenyev : 1813~1883)이다. 오를현의 대지주 출신으로, 1840~1870년대의 러시아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문체적인 장편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특히 서정성(抒情性)이 풍부한 자연묘사와 동시에 여성묘사의 정교함으로도 유명하였다. 페테르스부르크 대학 졸업 후 독일로 유학하였다. 1843년에 프랑스의 인기가수 비아르도를 따라서 프랑스로 간 이후로는 거의 국외에서 살다시피했다.

그의 작품으로는, 농노제도 하의 러시아농민을 진

지하계 그린 《사냥군의 일기》로 출발하여, 잉여 인간의 삶을 다룬 《루딘》, 《귀족의 보금자리》에 이어 니힐리스트 바자로프를 주인공으로 세대간의 첨예한 대립을 그린 《아버지와 아들》이 그중 압권(壓卷)으로 특히 유명하다. 그 밖에 장편에 《그 전날밤》, 《연기》, 《처녀지》, 중편으로는 《첫사랑》, 그리고 말년의 작품인 《산문시》와 희곡 《마을의 1월》 등이 있다.

단편소설의 정의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으나 생각같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문자 그대로 짧은 소설의 뜻이나, 그러나 동서고금을 통하여 분량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영미의 쇼트 스토리(short story)는 보통 1만 단어 이내 정도의 범주의 것을 지칭한다고 한다. 콩트(contes)나 노벨라(novella) 등도 거의 같은 것이다.

원래 노벨라는 보카치오(Boccaccio)의 《데카메론(Decameron)》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보통 교훈적이고 종종 풍자적인 그러한 짧은 산문조 이야기를 말하고, 노벨레트(novelette)는 중편소설(medium-length story)로 보통 영어로 3만~5만 단어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한다.

근대의 단편소설은, 인생의 한 단면을 날카롭게 잘라 인간의 본질을 묘사하는 경향이 강하고, 단일 효과를 노리며, 장소와 시대에 의한 변화는 적다고 말할 수 있다. 옛날의 그리스나 아시아의 우화(寓話)와 동화, 중국·한국·일본의 전기(傳奇)와 설화집, 또 《아라비안나이트》도 단편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근대적 단편소

설의 발생은 정작 19세기에 들어와서이며, 대표적인 작가로는 미국의 포(E.A.Poe:1809~1849), 호손(N.Hawthorne ; 1804~1864)과 오 헨리(O.Henry:1862~1910)를 들 수 있다.

또 영국의 스티븐슨(R.L.Stevenson:1850~1894)·키플링(R.Kipling:1865~1936)·맨스필드(K.Mansfield:1888~1923)와 프랑스의 메리메(P.Merimee:1803~1870), 모파상(Guy de Moupassant:1850~1893), 러시아의 체호프와 투르게니에프 등과 우리나라에서는 김동인(金東仁), 이효석(李孝石), 김유정(金裕貞) 등이 발군의 단편작가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이야기를 잠깐 바꾸어서, 회개(悔改)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인데, 인간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후회·회한·참회는 다 같이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특히 참회(懺悔)는 자기가 범한 죄를 하느님이나 부처님 또는 동일한 교단에 속하는 신도를 향해 고백하고 뉘우치며 용서를 비는 일이다. 가톨릭교에서는 특히 고백(告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죄를 용서받기 위한 죄의 고백으로 고해(confession)란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고려 초에서 광종(光宗 : 재위 949~975) 연간에 균여대사(均如大師)가 지은 십구체(十句體)의 향가가 있다. 이를 《참회업장가(懺悔業障歌)》라고 하는데,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 11수(首) 중의 하나로서 업장(業障)을 참회하는 내용의 노래다.

업장(業障)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前生)에

지은 죄로 인하여 이승에서 받은 마장(魔障)을 말한다. 마장(魔障)은 어떠한 일에 마가 끼어 드는 일이다. 거의 같은 의미로 마희(魔戲)는 귀신의 장난 또는 헤살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에 마가 끼는 것이다. 여하튼 이 향기는 이두(吏讀)로 표기되어 있으며, 합천 해인사의 장판(藏版)으로 전하는 《균여전(均如傳)》에 실려 있다.

참회란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그리고 마음을 고쳐 바로잡는 것이라고 이미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종교에서는 신이나 부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일이다. 참회를 하는데도 일정한 방법이 있다. 비구가 죄를 참회할 때 하는 다섯가지의 법식이 있는데 이를 참회 오법(五法)이라 이른다. 곧, 가사(袈裟)를 입고 오른쪽 어깨에 얹매,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임, 합장(合掌)함, 대 비구의 발에 예배함, 저지른 죄명을 말하는 것, 바로 이 다섯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회록(懺悔錄)은 지나간 잘못을 참회하여 적은 기록인데, 고백록(告白錄)이라고도 한다. 로마의 사상가인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 354-430)의 참회의 자서전 격인 《참회록(Confessions)》이 있다.

400년 경에 완성된 전(全) 13권으로 되어있는데,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며 신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미하였다. 영어명으로는 Saint Augustine인데, 북아프리카의 Hippo의 bishop으로 유명한 신학자였다. 이를 Saint Austin이라고도 한다.

또 하나의 고백록은 루소(Rousseau)의 역시 자서전격인 《참회록(Les Confessions)》인데 1765~1770년에 완성되었다. 태어나서 1765년까지의 내면적 자기 형성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이다.

단편소설 중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최고로 뛰어난 작품은 뭐니뭐니해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누가복음(15:11~32)에 나오는 《회개한 탕아(蕩兒)》가 바로 그 것이다. 원제로는 “the prodigal son”으로 되어 있고, <돌아온 탕자>, <회개한 죄인>, <방탕아의 귀향> 등으로 번역되는데 가히 압권(壓卷)이다.

문체의 간명(簡明), 주제의 적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폐부(肺腑)에 깊이 와닿는 것이 있다. 그속에 담긴 형언할 수 없이 피어오르는 인간애(humanity), 동서고금을 통하여 일찍이 이렇게 우리의 심금(心琴)을 울린 짧은 이야기는 없었을 것이다.

